



향 수
4 5 편

3	강칭금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여정 안에서
4	유선희	믿음의 여인들	기도의 밭줄
5	박지원	믿음의 여인들	어느 날 갑자기 선택을 해야 한다면
6	정문경	믿음의 여인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7	신수진	마더와이즈 회복	주님의 신부로서 사는 삶
8	최이정	마더와이즈 회복	그리스도의 신부
9	이수연	마더와이즈 회복	너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험시바!
10	이효미	마더와이즈 회복	간증문
11	안지원	마더와이즈 지혜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12	전서영	마더와이즈 지혜	인생의 슬한 씨실과 날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13	곽지혜	마더와이즈 지혜	축복된 사명과 감사
14	노다은	마더와이즈 지혜	간증문
15	안상미	마더와이즈 지혜	순종
16	이주현	마더와이즈 지혜	간증문
17	이여준	마더와이즈 지혜	하늘 아버지, 나를 감싸 안으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18	임은영	마더와이즈 지혜	간증문
19	조순희	마더와이즈 지혜	나의 삶의 우선순위
20	서은영	마더와이즈 자유	광야로 나아가며
21	이승연	마더와이즈 자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22	박주희	마더와이즈 자유	나의 생명되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네
23	이정현	마더와이즈 자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24	최연화	마더와이즈 자유	간증문
25	오애란	마더와이즈 자유	간증문
26	배은아	마더와이즈 자유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다!
27	정예진	마더와이즈 자유	뜻밖의 선물
28	최지선	마더와이즈 자유	자유함을 얻기 위해 내가 지금 할 일
29	김국희	말씀카페 사랑반	우리 하나님 아버지
30	국은희	말씀카페 기쁨반	기도하면 내가 그를 기뻐하리니
31	송혜란	말씀카페 기쁨반	음기에서 배운 것들
32	김윤영	말씀카페 기쁨반	간증문
33	김미혜	말씀카페 기쁨반	간증문
34	김종원	말씀카페 평화반	고난 뒤에 감추어진 축복
35	이사라	말씀카페 평화반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36	한현주	말씀카페 인내반	감동의 목소리 선물
37	박정하	말씀카페 인내반	내 인생의 영적 로드맵 그리기
38	노혜원	말씀카페 인내반	음, 끈기로 순금임을 증명하다
39	채경선	말씀카페 인내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40	손명화	말씀카페 온유반	음의 고통으로 이해되는 연단의 법칙
41	이한나	말씀카페 온유반	코로나-19를 통한 감사
41	박순희	이슬비 성경암송	도전과 성장
42	정신애	이슬비 성경암송	붙어 있으면 됩니다
43	전연향	이슬비 성경암송	동행
44	이한광	성혜정 전도사 은퇴	성혜정 전도사님을 향한 고별 간증
45	김영미	성혜정 전도사 은퇴	감사꽃 한아름
46 47 48	향 수	2-3문장 감사글	성혜정 전도사님께 감사의 인사
49	성혜정	은퇴인사	뉴비전교회의 사역을 마치며



믿음의 여인들

처음으로 부리더로 반에서 섬기게 되면서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 리더 집사님의 기도처럼 누구보다 먼저 저에게 도전이 되고 배움이 가득한 시간임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인들을 듣는 것도 좋았지만 직접 찾아보고 성경을 꺼내 읽고 설교들을 찾아가며 듣고 찬양과 좋은 영상들을 나눠보면서 더 깊은 묵상을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섬기는 자리가 부담스러워 고사할 때는 알 수 없던 한 그룹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필요를 예수의 옷을 입고 대신하여 간구하며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한 시간, 한 시간 쌓이면서 좀 더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예전에는 남에게 관심도 없던 모습이 이제는 알람을 맞춰 놓고 중보를 하면서 기도 노트를 펴지 않아도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변화에 감격하고 기도를 리더 집사님과 함께 드리고 난 후 느껴지는 성령님의 뜨거운 열기에 밤 잠을 설치면서 기뻐하는 중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가족과 인터넷 없이 시간을 보내 보면서 산책을 싫어하던 첫째 아이가 산책 후 돌아오는 길에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그때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한 번의 영적 성장을 시켜주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내 열심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컸음을 인정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잘하는구나라는 달란트 발견이 모든 내 자리에서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는 욕구로 변하려는 내 속의 욕망을 자각하게 되면서 믿음의 여인들에서 배운 믿음의 용기란 바로 나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려는 죄의 습성을 발견했을 때 시린 가슴과 자각하기 싫은 현실의 본모습에 다시 한번 그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처럼 주의 발아래서 배우고 따르며 내 모습 그대로 나와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과도한 인터넷의 사용 금지는 그전에 온라인 게임 앱을 지울 때나 삶의 시간 속에 알람으로 기도 시간을 저장하고 성경을 읽고 하던 것보다는 훨씬 힘들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남편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서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며 아이들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져 앞으로 더욱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신앙인으로 자라가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여인들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나의 삶은 지쳐갔고 영적으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항수 예배 시작은 나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임을 알기에 '믿음의 여인들' 반을 등록하게 되었다. 믿음의 여인들을 공부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 여인들이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명 한 명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들 속에는 나의 성경 지식보다 더 많이 헌신하며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활동 제약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헌신. 믿음들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감탄만 나올 뿐이다. 그 중에 기도하는 한나를 공부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음으로 고통 당하는 와중에 끊임없이 예배하였다. 또한 기도 of 밭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길로 움직이게 한 한나.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훈련시키고 온전히 그 아들을 주님께 맡겼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상상이 가지 않는다. 한나의 상황은 나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함이 많았다. 그렇기에 그 아픔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 결혼을 하고 9년이 지나도록 주님께선 나에게 자녀를 갖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 처음 몇 년은 금방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다렸지만 3년, 5년이 넘어가면서 절망도 많이 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나를 많이 보게 되었다.

몇 번의 유산으로 자연 임신으로는 갖기 힘들었고 시험관도 여러 번 실패하였다. 주변엔 너무 쉽게 되는 임신을 왜 나에게 주시지 않으신 걸까 주님께 여쭙보고 여쭙어 보아도 묵묵부답이었다.

길을 가다가 임신부와 아기만 보아도 부럽고 슬프고 마음이 시렸다. 날이 갈수록 난 더 초초하게 되고 어디를 가도 속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결혼한 사람 대화들은 대부분 아이들 얘기로 가득했고 나만 동감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시댁에도 빌 면목이 없었고 친척들은 애써 외면하지만 지나가는 말로 건네는 말들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 되돌아왔다

8년쯤 기다렸을 무렵이었을까 교회에서 가족단위로 축복기도를 해주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무언가 나에게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꼭 자녀를 주어서 가족을 이루 시계 하시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감사함으로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고 그 느낌은 지금도 기억난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고통을 씻어주고 주님의 귀한 자녀를 주시기로 확정해주신 날 그 후로 좀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주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기에 기대하고 기대하며 참아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주신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 나한테 찾아오고 만나고 꿈같은 10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지금은 개구쟁이로 건강하게 내 옆에서 하루에도 몇 십 번 엄마~를 부르며 재잘거린다. 뒤돌아보면 그 긴 고통의 세월 동안 주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신 깊은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는다. 한나의 희생으로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주님의 귀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신 것처럼 기도의 밭줄을 놓지 않고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온전히 맡기고 그 삶을 이끄시도록 오늘도 기도해본다.

3월에 자택격리 이후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남편과 세 아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로 하루 세끼 식사 준비와 집안일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갖었던 막연한 불안감과 코비드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자리에 매일 같은 생활의 반복과 분주함으로 불평과 피로함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가을 향수에서 믿음의 여인을 배우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그냥 지나쳐 읽었던 믿음의 여인들 특히 기생 라합의 믿음과 용기 그 실천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시 교만하고 굳은 생각을 가진 저를 주님은 깨우쳐 주시고 가장 낮은 기생을 쓰셔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돕고 자기 가족을 구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서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그런 큰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선택의 순간 라합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여호와가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왕들의 멸망도 들었고 이 땅 위에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라합을 그런 용기를 내어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에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그 뒤에 그녀와 가족을 모두 살리며 본인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상식을 뛰어 넘으시는 가장 낮은 자리의 기생 라합을 쓰셨으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지만 온라인에서 더 뜨겁게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향수 자매님들과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며 눈물을 같이 흘리며 기도 하게 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여인들



이번 가을 학기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이기도 했고 아이가 온라인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향수를 잘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렵게 느껴졌었던 욕기 말씀 카페도 너무 듣고 싶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하게 수업을 듣고 싶어서 다시 믿음의 여인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분주했고 온라인 수업에 적응이 안된 아이의 호출과 요구를 들어주느라 정신이 없었고 임신 중이어서 허기짐을 못 참아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했고 몸은 빨리빨리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끼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중간중간 인터넷 커백션이 끊어지고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흐름이 끊겨도 자매님들의 믿음의 삶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반은 여러 번 참여했고 공부했지만 참 신기하게도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게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는 한나가 기억이 납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 중에 있어서였는지 아이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한나의 마음이 느껴지며 생명의 소중함이 깨달아지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둘째에 대한 마음이 있었었지만 저의 생각과 계획대로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겪으며 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주시는 걸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둘째 자녀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저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깨달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가운데 생긴 아이라 혹시나 힘들진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보다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 동안에 잠도 많이 자게 해 주시고 삼시세끼 더 잘 챙겨 먹게 해 주시고 너무 피곤치 않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니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 대신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는 시간들도 늘고 많은 것들과는 단절되었고 막혀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생명의 주관자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제가 되기를 환경의 막막함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큰 아이가 학교 생활 중에 큰 아픔을 겪으며 힘들게 고등학교 주니어 시니어를 지나는 동안, 엄마로서 아이와 같이 바쁘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아이의 일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된 채로 나 자신은 사라진 듯했다. 가족들을 뒷바라지하며 소모품으로서 존재하는 듯한 생각 때문에 우울하고 지쳐있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견뎌내기 힘들 바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날이 빨리 왔으면 하며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무심해진 상태여서 기계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향수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새로 같은 목장에 배정된 서정윤 자매님께서 내가 전에 자유반을 수강했었으니 이번엔 회복반에 등록해 보는 게 어떨지 권유하셨다. 자발적으로는 새로운 일에 한 발자국도 내딛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성격에 자매님의 권유는 큰 힘이 되었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수업을 한다는 것이 교회까지 편도 30분 운전거리도 번거롭게 느끼는 나에게는 큰 편의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다.

마더와이즈 회복을 통해서 나를 놀랍게 변화시킨 실마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선택되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유대의 결혼 관습을 이야기로 꾸며서 풀어가는데,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잘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시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왔고 이제는 의심 없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었다.

요한복음 15절 16장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라는 말씀이 첫 주의 말씀이었었는데,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게다가 나라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격스러웠다. 그리고 과실을 맺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에 걸맞게 나를 준비해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약혼 이후 결혼식날 데리러 오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지 알게 된 것이다. 주님의 신부로서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아름답게 꾸미고 합당하게 행동할 것이다. 주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할 것을 모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나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졌고 그렇게 드리기로 주님께 약속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은 나를 만들기를 힘쓸 것이다. 비록 완벽한 모습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내게 실망하지 않는다. 여전히 나를 신부로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세상이 거짓말로 속이며 내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실패자라고 몰아붙일 때 이젠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뒷바라지하는 엄마로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희생만 할 수밖에 역할로서 일궈낸 작은 열매들을 주님이 값지게 여기실 거라고 믿고 지금의 나의 환경을 감사할 수 있게 됐다. 가족을 섬기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사였고 사명이라는 것, 이 땅에서 내 삶은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금과 보석으로 만든 신방을 위해서 쌓아 올려지고 있는 벽돌이라는 것, 이런 깨달음으로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 설명되었다.

또한, 주님이 택하실 다른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는 상태로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 어서 빨리 선택받는 축복을 누리도록,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다른 사명도 생겼다.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에게 이 사랑을 빨리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내게으름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주님, 저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지금의 나의 삶을 사는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심히 부족하더라도 당신이 사랑을 거두어 가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제 힘으로는 부족함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겠어요. 저를 사랑해주시고 택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최이정

그리스도의 신부

마더와이즈 회복

이번 학기 마더와이즈 회복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련해 놓으신 시간이라 생각하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 전에 바빴던 화요일의 일상이 잠시 주춤해지면서, 향수에 다시 등록할 수 있었고, 이 시간 회복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첫째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성경에서만 표현되는 천국이 사실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공부하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세상 끝나고 예수님을 대면한다는 것에 저의 마음이 참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기름을 늘 준비해야 함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 늘 향하여 있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향하여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음을요.

둘째, 예수님이 나에게 향하신 무한대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공부 중에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두신 보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의 머리로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석에만 눈이 가고,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사는 내가 과연 천국에서 그 보석을 본들 얼마나 좋을까 상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내용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향하신 무한대의 사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를 저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저에게 향하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회복을 통해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가정도 회복이 되고 또한 나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남편과 저의 아이들에게도 향해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학기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회복을 택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회복 시키실지 많은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레위와 술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을 준비 하는 신부로서 어떤 몸가짐과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며, 나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하셨고, 남편과 주님께서 주신 기업: 삼 남매, 세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셨다.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 있던 회복에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남편과 세 아이들과의 관계의 회복과 치유를 보여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가 얼마나 내가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셨다.

남편과 세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순간들을 보여주면서 남편도, 세 아이들도 주님의 소중한 귀중한 신부들임을 또한 알게 하셨고, 가족들을 통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또한 알게 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들을 고린도 4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로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의 눈치나 칭찬을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 맺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칭찬을 위해,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신부로, 돕는 배필로, 지혜로운 신앙의 선배이며, 엄마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주님께서 주신 풋대를 향하여 한발 한발 믿음의 행보를 하기를 다짐해 본다.

시편 3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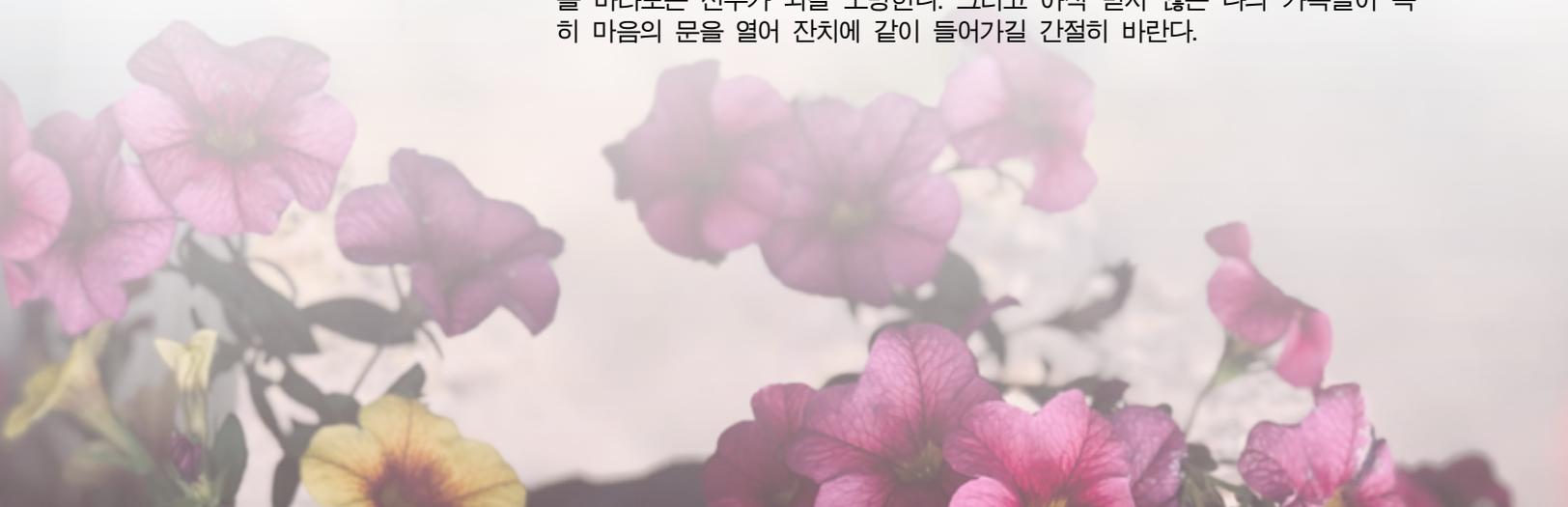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번 학기 향수는 사실 예배만 보고 소그룹은 다음 번에 하자 하며 시작하였다.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 아이를 챙기기에 바빴고 다른 공부도 하고 있어서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그러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마더와이즈 회복반에 들어왔고 반겨주시는 집사님들 덕분에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하게 되었다.

회복 공부를 통해 하나님은 티끌 같은 나를 자신의 아들(예수님)의 신부로 나를 택하심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무조건 따라야 할 아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기다리며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늘 준비하는 모습으로 내 안의 변화를 이루며 오실 신랑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나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최종 목적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머리로 는 맞아요 주님 그랬지만 실제 나의 삶은 너무나 부끄러웠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가 그의 창조물임을 알면서도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인 것처럼 난 종종 행동하곤 했다. 나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스스로 내가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책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했다 그것은 참으로 오만한 행동이었고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전의 내가 아닌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내 안의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오이에서 피클로 변하는 것에 비유한 설명이 있었는데 나 자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피클로 되려고 하면 다시 오이인 예전의 나로 돌아가 다시 주저앉을 때가 많았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나를 씻어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감내하지 못하고 내 죄를 내가 다시 끌고 돌아오곤 했다.

그랬던 나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관철다 하시며 때로는 누군가의 기도로 때로는 성경말씀으로 때로는 마더와이즈 교재를 통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작음을 돌아보며 나를 택하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 용서로 시작하여 마지막은 나 자신을 용서하여 내 마음에 더 이상 미움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회복임을 알게 해 준 이번 클래스를 들으며 난 그동안 왜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만 나 자신을 두었었나. 이제는 그러지 말자! 그리고 그 마음 변치 않길 기도하며,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오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그래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부가 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속히 마음의 문을 열어 잔치에 같이 들어가길 간절히 바란다.



향수 예배. 마더와이즈에 대하여, 목장 자매님들 또 교회 자매님들을 통해서 듣고 항상 기회가 되면 가고 싶고 듣고 싶었었는데, 일을 핑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언제나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과 생활이 바뀐 이후 “좁으로 향수 한대, 너도 빨리 등록해”라고 언니의 한마디에 고민하지 않고 바로 등록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또 하고 있는 일들,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던 나에게, 향수 예배와 마더와이즈는 내가 주님의 딸로, 여성으로, 아내로, 또 엄마로서 어떻게 더 잘 지낼 수 있는지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내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생각하며 마더와이즈 공부를 시작했는데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숙제를 하면서 그 시간이 힘들지 않고 조용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첫 부분에 나는 삶의 지혜를 어디서 찾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은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친구들 아니면 아이들 친구 엄마들을 통해 그 답을 구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께 먼저 말기지 않고 나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했던 저였습니다.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항상 동행하신 다는 말씀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타주에서 이사온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로 지내던 차에 알고 지내던 자매님들이 향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는 것을 듣고 지혜 클래스에 등록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내로서, 세 아이의 엄마로서 제 한계를 느끼며 부족함을 많이 느끼던 중에 마더 와이즈 클래스는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 처방이 가득 들어 있을 것처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좋아하는 자매님이 듣고 계시다니 낯을 가리는 저도 그 자매님께 의지하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두 번째 시간부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클래스가 시작되기 전, 늦게 합류한 제게 교재를 전하러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주신 자매님의 사랑과 정성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전해주시는 교재를 받자마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마다 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가득 찬 교재를 읽는 재미에 빠져 첫 클래스가 무척 기다려지고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낯선 분들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첫 클래스가 시작되고,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나누는 자리는 특별했습니다. 자매님들의 각기 다른 생활환경과 경험 속에서 나오는 나눔을 듣는 것은 교재에서 느끼는 기쁨과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같은 교재를 읽었음에도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내용들이 다 다른 것도 신기했습니다. 매주 같은 내용을 공부했지만, 모두 다른 인격체이고 지금까지의 인생 경험도 다르다 보니 나눔이 다양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전혀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질도 색깔도 다른 씨실과 날실들이 새롭고 특이한 느낌의 옷감을 만들어낸 것처럼 저희 소그룹만의 독특한 그 느낌이 참 따뜻하고 포근해서 매주

다음 모임이 기대되었습니다. '6'S 기도' 또한 제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기도도 서툴고 중언부언하기 일쑤였던 부족한 기도지만, 제가 기도하는 자매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 또한 주님과 친밀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모든 지체의 기도를 듣고 서로가 서로의 간구를 전심으로 중보 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임에도 서로가 가족처럼 가까워지는 경험은 세상의 모임과는 구별되는 특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이 저에게 특별했던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클래스를 통해 배움과 기도로 하나 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남편의 뇌종양이 재발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처음 며칠 동안은 낙심과 불안으로 눈물만 흘리며 보냈는데, 검사 결과를 두고 함께 기도해주시던 제 기도 짝이신 리더 자매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기도와 격려를 통하여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소그룹의 모든 자매님들 또한 진실 어린 중보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섯 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수술에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물러들 때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기도로 무장한 주님의 군대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병원과 아이들이 있는 집을 오가며 전전긍긍할 저를 위해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주시는 자매님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구하기도 전에 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남편은 수술을 잘 마치고 무사히 퇴원 후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료의 여정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어느 순간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다음 발길을 내딛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항상 있었지만 우선 순위가 자주 뒤바뀌는 질서 없는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고 몸과 마음의 게으름을 이겨 내고 꾸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로 인해 향수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포기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향수 예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셋을 돌보면서 성실하게 잘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과 은혜를 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제별 소그룹을 하면서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어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결혼을 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서투르게 하나, 둘, 셋의 엄마가 되었지만 각각의 역할을 일관적이고 바르게 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는 각각의 역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지침이 있어서 유익했고 제 삶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더와이즈 지혜에서 와 닿았던 부분은 어머니의 역할, 자녀와의 관계 부분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세 아이들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했고 어머니라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준 말이었습니다. 평소에 아이 셋을 키우면서 양육과 훈육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먼저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기보다는 육아서를 꺼내 공부하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따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와 아이들에게 궁극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듯해도 다시 반복되거나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왔

고 또 그 방법을 일관적으로 해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마더와이즈에서는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세 가지 선물로 '사랑의 담요', '훈육의 회초리',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으로, 회초리로 훈육하고 순종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참 부모님 되시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참 부모님임을 알려주고 그들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는 성경적이고 중요하면서 간결해서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고 성경 속에 나온 자녀들을 위한 기도대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게 어머니라는 소중한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향수 예배를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소그룹 모임 중에 선펠스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소모임 구성원들이 매주 한 가지 기도제목으로 두 세 문장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중보하는 마음이 모아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직 해 보지는 못했지만 가족들과 특히 아이들과 함께 선펠스 방식으로 기도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향수 예배, 마더와이즈를 통해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기는데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축복함으로 주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 지혜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향수 예배와 마더와이즈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 마더와이즈 지혜!



노다운

간증문

마더와이즈 지혜

저는 올해 코로나의 영향력이 한국까지 극심해지던 2월 이곳 산호세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타국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영적으로도 깊이 침체되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상담을 요청하고 성혜정 전도사님께도 연락이 닿아 가을학기 향수 마더와이즈를 듣도록 권면을 받아 지혜반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Zoom으로의 모임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출산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디에도 나갈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를 공부하며 지혜로운 여인의 기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초반부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시간, 구원의 확신을 세모로 대답한 저는 리더님, 부리더님과 함께 새롭게 복음을 제시받고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신자는 아니었지만 다시금 복음을 듣고 영접하며 제 초점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로 더욱 맞춰지게끔 인도해주신 거 같습니다. 이후 아내로서의 여성, 어머니로서의 여성, 여성의 사역 등을 배우게 되었는데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함을 에스더나 룯 등의 여성들의 모습을 예로써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간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는데 마더와이즈 지혜의 시간은 그런 지혜를 공급해주는 창고 같았습니다. 또한 다른 선배님들의 경험들을 들으며 아이가 어린 저로서는 많은 지혜와 경험을 마음에 미리 담아둘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써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몽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요 딸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이 딸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고백하며 저 또한 성실히 육아와 중보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다시금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남편의 돕는 배필로써 믿음의 어머니로써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며 저에게 이 시간을 통해 지혜를 공급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신 리더님과 부리더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6s 기도로 중보 하며 서로를 응원한 팀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기간이 길어지니 마음이 약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니 가족들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생겨났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부족할 때 향수 온라인 예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될 때는 아이들 등하교 문제로 참여할 수 없었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제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닮아 간다 했지만 정작 삶에서는 순종치 않았던 과거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남편과의 갈등도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말씀으로 순종하라며 다시 낮아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또 나인지, 왜 매번 나인지 불평과 불만으로 말씀을 거부했지만 주님께서는 너여야만 한다며 제가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방법부터 변화 되게 하셨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를 만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머니, 아내,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저는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지혜반을 들어가기 전부터 이번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하며 하나님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어떻게 구하여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마더와이즈 지혜반은 매주 공부하면 할수록 설렘이 있었습니다. 너무 부족했던 나의 목마름이 한주 한주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조금씩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부족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내가 매일 하나님과 나만의 온전한 시간이 없었음을 느끼며 매일 눈을 뜨면 30분이라도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작정하고 주중에 매일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는 남편을 이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이고 리더 자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하셨고 섬기는 마음 또한 주셔서 육하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며 안될 때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지혜반을 공부하는 동안 남편과 더 많이 웃게 되었고 제 맘에도 더욱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되든 안되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남편의 갈비뼈로 만든 돕는 배필로 남편을 존경하며 남편의 심장을 지키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맘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성경공부를 하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또다시 아이들에게 잔소리 폭탄을 던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보자니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답답한 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온전하지 못한 부모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부족한 육신의 부모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이 드니 제 마음에도 평안이 오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섬김과 봉사에 대한 질문이 던져질 때면 전 못 들은 척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다르게 만드셨듯이 지금 제 사명은 제 가정에서 아내로 엄마로 가족들을 섬기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도움을 주고 기도의 중보자가 되는 것도 나의 사명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시든 아멘으로 화답할 날을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도록 주욱 노력할 것입니다. 저를 이 자리로 택하여 주셔서 좋은 집사님들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 중보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여준

하늘 아버지, 나를 감싸 안으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마더와이즈 지혜

Shelter-in-place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매주 교회에서 마주치며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던 분들을 자주 만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신 지혜 2반 리더님과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향수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동기는 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제가 나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도의 기회를 주셨고 순종함 가운데 좋으신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부하며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말씀의 순서대로 나를 만나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 14:20). 리더님께서 알려주신 종이접기 바구니를 가족과 만들고 하나씩 포개어 보면서, 유년기에는 하늘 아버지, 청년기에는 나를 감싸 안으신 예수님,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순서대로 만나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한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었는지 몰랐던 만남들이 주님과 만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주님을 더 알아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축복된 삶 임이 내게 현실이 됩니다.

주님,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매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매고,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맵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나를 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립니다.



2020년 7월 여름 특강 소선지서를 친한 은하 언니랑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2주 후... 하늘이 무너지는 은하 언니의 백혈병 소식... 일주일도 넘게 실감이 나질 않았다. 거짓말 같았다. 잠시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우연히 향수에서 욕기서를 한다고 들어서 언니가 좋아하는 욕기서를 같이 듣고자 했지만 언니의 건강 상태와 병원 일정으로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우연히 언니 중보 기도로 성혜정 전도사님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전도사님께서는 아이들 안부를 물으시며 마더와이즈를 들었냐고 물으셨다. 아니라는 나의 대답에 전도사님께서는 자신의 짧은 간증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번에 꼭 들으라고 사랑의 권유를 하셨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에 등록을 했고 등록했다는 소식에 전도사님께서 기뻐해 주셨다.

8주 동안 할 교재를 본 순간, 거룩한 부담감이 들었다. 할 것이 너무 많았다. ‘강의가 아니었네.’ 또한 돌아가면서 교재 요약을 해서 카톡에 올려야 하고 밀리지 않게 교재 내용을 공부해야 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난 지금, 지혜반 리더님과 함께 은하 언니를 위해 8주 동안 기도해준 집사님, 자매님들에게 너무 감사했고 향수 친구 초대를 통해 지혜반을 같이 마친 친한 동생이 열심히 말씀을 통해 고민하며 관계를 되돌아보고 응용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 하심을 느꼈다.

지혜반을 통해 느끼고 깨달은 것이 많지만 그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는 남편과의 관계를 공부하면서 결혼한 지 11년이 되어서 결혼예식과 축하 음식에 성경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냥 문화적이고 서양적인 결혼방식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보여주신 장면처럼 하객 가운데를 걸어가는 신랑과 내가 거룩한 언약을 보여주고 있음을. 서로 케이크를 먹여주는 모습은 서로 한 몸이 되는 선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둘째는 자녀와의 관계를 공부하면서 훈육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무엇보다도 아이들 훈육을 똑바로 하려고 노력했고 부모에 순종하는 아이들로 키우려고 엄하게 할 때도 많았다. P 199 따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즉 자녀를 훈육하는 진짜 이유는 훈육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딸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두 자녀의 엄마로서 나의 역할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깨끗한 그릇으로 항상 준비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순종의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한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시작한 마더와이즈 지혜 클래스는 지금까지 나의 삶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내일의 방향을 인도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좋은 아내이자 엄마로 세상의 많은 지식과 계획으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결국 뒤돌아보니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아내요 엄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제자리걸음 중은 아닌지 고민하며 때로는 의심하는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 지금 그대로의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위로와 격려로 다시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세우며 남편으로 아들로 질서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적용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현실은 재택근무로 힘들어하는 남편의 어려움과 불편함에 공감하며 부드러운 말씨와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며 집을 떠나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는 사랑과 격려로 말씀을 전하는 엄마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주변 상황은 변함없는 아내요 엄마이지만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며,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맡겨드리는 순종의 결단으로 클래스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은영

광야로 나아가며

마더와이즈 자유

‘광야를 지나며’의 작곡가가 출연한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소그룹 카톡방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뭐 주꼬?’ 물으셨을 때 진정으로 구했던 것을 다 채워 주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만약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에 대해 얘기했는데 나이 어린 두 자매님께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한 분 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3년 전 마더와이즈 자유 마지막 과를 공부할 때 ‘지금 거하고 있는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먼저 용서를 구했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기도하며 견뎌야 하는 기다림의 터널 속에서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이번 학기 자유를 공부하며 빠져나오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에스더 4:14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2020년 새해 아침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한다’ 말씀하시듯 소소한 나눔을 통해 저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의 목소리를 진리로 돌아가는 추진체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거하고 있는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 너의 삶을 향한 나의 계획으로 옮겨가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겠니?’ 제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룻기 4:11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홀로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행복을 사모하며 은혜의 광야로 나아갑니다. Let your will be done in me.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크신 계획을 속삭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모든 것들이 의미 없고 하찮게 보였고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대일 양육을 받으며 주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기도하며 은혜받던 때가 까마득하게만 느껴지고 끈 떨어진 연처럼 외로웠습니다. 세상 소식에 민감해지고 노출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감을 느꼈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치여서 금성과 향수에 등록하지 못해 참석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동안 소중한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나 자신이 밉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되곤 했는데 마더 와이즈 자유를 배우는 동안 그런 일이 왜 자주 일어나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를 우울감, 절망감, 실패감에 빠지게 만드는 건 사탄의 공격이었고 혼자 해결하려 발버둥 치고 있었기에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괴로워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연민은 매일 반복되는 가족을 위한 봉사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가치 없는 일이라고 느끼게 만들었고 보람과 기쁨, 행복감, 감사함 모두 뺏어가 버렸습니다.

나의 가치와 자존감은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생긴다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딱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느끼는 요즘의 나는 표정이 밝아진 듯하고 아이에게 화내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상에 감사하고 하루의 중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세상적인 것들로 나를 채우기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아뢰는 것이 바로 그 해답이었다는 걸... 든든한 나의 뒷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지만 나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내가 어쩌다 신앙 좋은 남편을 만나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십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이를 혼자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 이후 온 가족이 미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 넓은 캘리포니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은 나의 욕심과 계획을 철저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졌지만 순순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붙들고 힘들어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향수에 재등록 하라는 지난 학기 말씀 카페 김애경 권사님의 권유에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다 향수가 시작하는 전날 밤 12시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자매님들과 온라인을 통해 나눔을 한다는 것 자체에 큰 기대 없이 시작한 자유반은 처음부터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앞에 놓인 많은 고민거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과거의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의 양동이는 세상적인 욕심,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어찌 예수님의 생명을 제 안으로 초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자유 과정을 들으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일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나의 욕심이 내 속 사람을 지배할 때가 있지만 나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입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자유반의 자매님들과 삶과 신앙의 고민거리들을 나누면서 저에게 많은 도전과 위로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상황에 따른 고민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주권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할지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나 나 자신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셨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여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정현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마더와이즈 자유

2년 전 향수 친구 초청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는 마음에 예배에 참석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예배와 활동이 중단되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태가 지속되던 어느 날 향수 예배 이메일을 받게 되면서 온라인 향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에 마더와이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내가 참석하는 교회가 아닌데 신청해도 될까라는 생각에 망설이며 1주, 2주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친구 초청 예배가 있던 날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을 원하시는 분은 남아주세요”라는 말씀에 잠시 망설이다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소극적인 저에게 제가 아닌 주님이 머물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 자유반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해하는 저에게 자유반 자매님들께서 너무나도 반갑게 환영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이곳을 예비하셨구나.’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를 시작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함께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더 깊이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길 기도하며 제 삶의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함께한 마더와이즈 자유반 리더님과 자매님들의 진솔한 나눔, 위로, 격려가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지치기 원리를 통하여서 내 삶에 가지 쳐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잘라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특히 자녀양육과, 남편과, 나 자신에 대해 뒤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가끔 자녀들을 대할 때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상처를 주며,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힘들었던 저는 자유를 통하여 이 마음은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라는 말로 위로해주실 때 그동안 제 안에서 답답하고 풀지 못한 어려운 숙제를 해결한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다윗의 소극적인 육신의 태도, 엘리 제사장의 소극적인 양육방식을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주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양육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며 주님이 주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 땡스기빙에 아빠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오랫동안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자주 만나 봐야 했었는데 라는 자책을 하며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었습니다. 자유를 공부하기 전까지 아빠에 대한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공부를 시작했고, 지나친 슬픔, 두려움, 자책, 걱정, 불안, 이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잘라내야 한다는 것임을 자유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은 마더와이즈를 통하여 저를 회복시켜주시고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함께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더 깊이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길 기도하며 제 삶의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함께한 마더와이즈 자유반 리더님과 자매님들의 진솔한 나눔, 위로, 격려가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동안의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한 내 자아로 살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을 안다고는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나의 정체성을 잃은 채 염려와 낙심, 외로움에 사무쳐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주체가 되다 보니 주님을 놓치고 소중한 나의 정체성을 잃고 분주한 생각, 분주한 행동으로 세상적인 생각에 뺏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육신의 삶으로 빠져드는 일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마저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이다. 생각이 주는 사탄의 전략도 한몫했다는 사실을 최근 들어 깨닫게 해 주셨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사탄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있는 것이고, 주님밖에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을 잃어가며 내 삶이 낙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음을 알게 해주는 시간들이었다.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자녀로서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소중한 클래스였고 서로의 삶을 share 하는 깊은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린다.



마더와이즈 자유

처음에 자유 반을 들어왔을 때 좋아하는 자매님이 리더님으로 계시니 한번 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로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방법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으니 말씀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공부하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아등바등하며 가정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 기대치에 맞지 않으면 비교를 정죄하는 모습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전에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쁨이 없었고, 교회 오는 것이 제일 큰 부담이었습니다.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봉사도 그동안 해왔던 거니 의무감으로 하였습니다. 교회는 바쁜 일주일에 나를 더욱더 바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강제적으로 집에 있어야 했던 바쁜 나는,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할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클라징을 다 들어내고 정리를 하는가 하면, 백 아드에서 흙을 뒤집어엮고 텃밭을 가꾸고, 꽃을 심으며 요리를 하고, 아이들의 스케줄을 정리하며 계속 바쁘게 나를 채근하였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는 내 가지라. 모태신앙인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들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죠. 주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로 알았던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혼자 깨닫지 못했던 것은 자매님들과 삶을 나누면서 나의 이야기로, 혹은 자매님들의 이야기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속 사람은 이미 주님의 것이고, 죄로 인한 나의 겉사람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형상의 속 사람이 진짜 나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한 번도 없으셨던 적이 없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심을 알았습니다. 내 삶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늘 함께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유 반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더와이즈 자유

마더와이즈 자유를 등록하기 전의 나의 영적 상태는 코로나 19 이후로 너무나도 두렵고 연약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예수님을 매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영적 계엄령을 피우고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인 가까운 동생의 권유로 마더와이즈 자유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9/1일에 시작한 마더와이즈 자유 공부와 함께 화요 향수 예배에서 읊기 말씀을 들려주는 건 나에게 보너스를 주는 기분을 갖게 했습니다. 8주간의 자유 소그룹 공부를 통해 나는 새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떠오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아이들과 남편,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의 저자 드니스 글렌은 미국 사람인데 마치 결혼 후 내 삶을 함께 살아온 것처럼 비슷한 경험을 가진 것에 새삼 놀라고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해결 받는 자잘한 간증을 통해 속이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 팁 실천을 통해 배운 것들을 실천해보려고 꽤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 그룹 내 자매님들의 은혜받은 경험과 현재 진행형인 기도 제목들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도 그 받았던 은혜들을 잊고 살았던 것이 새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온라인 수업과 남편 재택근무로 집안에서 조용한 내 공간이 없어서 향수 예배와 자유 소그룹 반에 개근하기 위해서 때론 차 안에서 또는 뒷마당에서 참여했던 기억은 두고두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유 공부가 끝나갈 때쯤 떨리는 마음으로 사춘기 아이들에게 엄마의 최근 상태를 물었더니 엄마가 더 조용해지고 자기 말을 잘 이해해주는 것 같고 평화로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와우!’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 또 하나는 내 간구와 중보기도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유 성경 공부는 끝났지만, 나의 간구와 중보기도는 현재 진행형이 될 것이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곁에 가지 된 내가 전적으로 붙어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자유함으로 기쁘게 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예수님께 우선 돌리고, 8주간 소그룹을 위해 매주 안내자 역할을 해주신 리더 집사님과 1:1기도 동역자와 솔직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이 갈급해 나눔을 통해 웃고 울고 함께 기도했던 사랑스러운 자매님들께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팬데믹기간 동안 어린 두 아들을 양육하는 저는 당분간 교회 모임은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고 두 아이가 모두 함께 있는 집에서는 저를 위한 모든 것은 포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소그름 모임마저 없다면 저는 너무 외로워질 이 생활이 두려웠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더라도 시작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마더와이즈 자유반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유반 공부를 통해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한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왜 제게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깨어짐의 증거들을 통해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매님들과 삶을 나누면서 미숙한 저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연약한 믿음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하며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리더님들의 모습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열정 안에는 제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고난들과 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길이 두려운 제게 용기와 담대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또한, 짝기도로 맺어진 자매님과 매주 이뤄지는 통화는 이 고독한 팬데믹 기간에 단비와 같은 힐링의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육아로 지쳐 기도조차 하기 싫을 때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자매님들은 제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불평만 늘어놓았던 제 자신을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모임이 제게 허락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과 멀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더와이즈 자유반 공부를 통해 끊임없이 저의 삶을 뒤흔드는 험난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이것 만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뿐 아니라 산물로 너무 힘들었던 이 시기를 함께해 주신 모든 우리 마더와이즈 자유반 자매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향수 예배를 섬겨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최지선

마더와이즈 자유

자유함을 얻기 위해 내가 지금 할 일

지난 학기 마더와이즈 자유 공부를 통해 배운 가장 큰 진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었다. 가지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생명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된다는 사실이 나를 억누르고 있던 무거운 책임감에서 자유를 주는 것 같았고 정말 신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향수가 끝난 후 배운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는 조바심이나 좌절감-지금 생각해 보면 사탄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 으로 당연히 가을 학기에 공부하려 생각했던 '회복'을 선택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 자유 공부를 하게 되었다. 자유 공부를 다시 하면서 새로 알게 된 부분도 많았지만, 신기하게도 처음 공부하는 듯 새롭다고 느낀 것도 많았다. 향수 소그룹에서의 나눔을 통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교제하며 기도를 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혼자 성경을 읽고 교재로만 공부했으면 몰랐을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서로 위로하며 기뻐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난 학기 자유 공부를 했음에도 제자리걸음을 했던 나는 같은 실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번 학기에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내가 꼭 시작해야 할 일이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친구이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나의 영은 완전히 의롭고 선하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육신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쉽게 흔들리는 연약함에 힘들어할지라도 매일 한 겹씩 육신의 모습을 벗겨가다 보면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으니 감사하다. 이런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용기를 준다.

둘째,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주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보체는 아이와 같은 기도를 많이 했다. 하지만 주님의 의지, 뜻, 때에 따라야 하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혼자 있는 낮에는 1시간 간격 알람이 울릴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만난다.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들을 수 있을 거라 믿고 그 시간의 평화로움이 좋다.

셋째, 내 삶 속에서 통제하려고 했던 남편과 아이들을 놓아주는 일이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배웠다. 자꾸 남편을 이기려 하고 내 맘대로 하려 했던 지혜롭지 않은 아내였다. 나는 아이들에게도 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있었던 엄마였다.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듣고 하는 것의 성과가 좋을 때만 칭찬했다. 내 맘대로 안되면 쉽게 성내고 기대치는 늘 높았다. 아이들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나에게 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소중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표현한 적이 있었나 반성해 봤다. 요즘은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단호하고 공정한 훈육,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지혜로운 엄마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육신을 따라 살아온 나의 이기심과 죄성, 삶을 통제하려고 했던 욕심을 버리고 포도나무의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맡긴다. 나의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지치기해 주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매 순간 십자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 내 뜻대로 살던 방식들을 모두 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 주신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한다.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어 다시 자유 공부로 이끌어주시고, 겸손함으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욥기로 시작한 향수 가을학기는 저에게 정말 만만치 않은 한 학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수에서 인턴으로 섬기길 원하셨고, 동시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하게 이끄셨습니다. 처음엔 “아직 아니에요”라며 뒷걸음치던 내게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욥기를 주셨고, “하라고 하셨으니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과 부족한 저에게 능력과 욥기를 주시길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욥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나 욥기를 1차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욥기를 이해하면 그것은 고난 후 축복이라는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가슴으로 이해하면 그 속에 숨겨진 심오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오는 고난 속에서 이것만 참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상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단순히 버텨던 저의 삶이 이번 욥기를 배우면서 매일 오는 고난 속에서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버지”,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냥 조용히 하는 인내가 아닌 끈질기게 버텨내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멀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바로 제 옆에서 저를 들으시고 저와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란 이름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에 더 가까워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향수의 모든 자매님도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의 고난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카페 기쁨반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고난이라고 말한다. 옴의 고통은 내가 겪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2020년 가을 향수를 통해 배운 옴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복음서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필독서다. 고난이라는 무거운 주제였건만 우리의 심령을 감싸시는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 참 감사하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만나 빛기를 소망하는 옴의 간구는 평범한 오늘의 삶을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한다. 평소에 가졌던 옴의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생활은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듯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다는 고백에 '생명을 존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은 옴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을 그 마음 속에 심어 놓으셨음을 깨닫게 하신다. 믿음 있는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고난 속에 혼자 견디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옴의 간구대로 하나님은 옴을 만나 주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옴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심이 참으로 놀라웠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정할 때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임함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옴은 옳았고, 옴의 친구들을 옳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옴의 옳음이 의로움이 아닌 '기도'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되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옴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도록 인도해 주셨다. 옴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허공

을 떠도는 것이 아닌,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며 선하게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 옴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다. 용서와 은혜받은 자로 사는 법을 알려 주신다.

사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 옴을 주목하게 하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생각과 판단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 하고, 또 나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자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옴기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옴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과 친구들이 내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신학적 지식이나 외적인 경건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

내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힌 '무지한 말이 생각을 어둡게 한다(옴38:2)',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생각들도 내어놓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바라는 '기도(중보) 하면 내가 그를 기뻐하리니..(옴42:8)' 우리에게 구속자 예수님이 있어야 하듯, 믿음 있는 중보가 이 땅에 필요함을 깨닫게 하신다.

오늘도 나는 무지한 말에 머물렀고, 어두운 생각으로 번져 나갔다. 그러다 퍼뜩 옴기 말씀이 떠올랐다. 이것이 나의 모습임을 주님께 솔직히 아뢰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길 간구하였다. 이 땅을 다하는 그 날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옴기의 말씀을 전에는 읽기만 하였으나 향수 말씀카페 옴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복음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학기 말씀 카페 욥기 공부를 통해 저는 등장인물인 욥, 친구들, 하나님을 새로 발견하고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선 친구들의 부당한 비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욥의 끈기와 인내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리라는 기대와 열망 끝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른 욥의 인내를 배우고 싶습니다. 반대로 그의 친구들은 좋은 반면교사가 되었지요. 설부른 위로나 충고의 폐해를 보여주며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악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권능의 창조주이시자 피조물에게 다가오셔서 대화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욥과 친구들, 그리고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표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신앙은 이번 욥기 공부에서 알게 된 보석입니다. 욥기에서 발견한 복음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며 아들의 피로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김윤영

간증문

말씀카페 기쁨반

그동안 나는 욕기에 솔직히 관심도 없었고, 굳이 만나기 싫었고, 숙제 같아서 싫고, 내 용이 너무 어렵고, 그저 피해 다니고 싶은 성경이어서 선뜻 욕기가 나지 않았지만 계속 미루고 싶지 않았다.

과연 예상대로 욕기를 공부해가면 갈수록 성경 공부로 대충 나를 감추어 왔고 교양 넘치는 성도로서 포장하며 남들에게는 가리고 싶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욕과 친구들을 바라보며 비아냥거리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나의 속마음이 정신없이 투영되었다. 욕이 겪고 있던 고난처럼 내가 익숙하던 습관과 삶이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의 절망감과 자괴감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 욕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편안하게 지낼 때 만났던 그 익숙했던 하나님과는 다르게, 고난 중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상실감을 통해서 결국은 욕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엎드려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엎드려진 욕을 통해서 그동안의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욕기를 통해 절실히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우리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만큼 말에는 우주로 움직이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설령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도 감정적으로 수용되지 못 하는 말은 그것이 상처로 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 욕과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다. 무고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실직자들, 비정규직, 독거노인들, 버려진 고아들,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사고로 사지가 잘려 나가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

욕기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욕기에도 그런 고통이 욕에게 왜 생겼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며 재단하듯이 말하는 친구들이 등장한다.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값싼 위로로 카톡 날리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이 되어주고 옆에 있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답은 중요하지 않다. 그 해답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 우리는 그저 심판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 주님이 그러셨듯이 - 위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히 요구하시는 삶이 아닐까?

이 욕기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말이 경박하지 않았는지,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이기적인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특히 욕기 6장을 배우면서 “우리들은 친구들과 최악의 우정을 경험할지라도 영혼의 친구들 soul friends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끄지 않는데, 그 영적 친구들은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며 우리에게 설교하거나 우리의 영성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다” 라는 내용의 설교내용이 내 마음을 강하게 자리 잡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욕기 스터디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만을 위한 등불 하나를 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 어둠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돌아보게 하는 등불로서 나에게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2020 가을 향수 <옴기- 하나님과 씨름하기> 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는 고난 속에 놓여 있기에 우리는 더욱 고난에 대해 묻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COVID-19으로 전 세계의 교회, 학교, 일터 등의 문을 닫아야 했고 지역 간, 국가 간의 이동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끔찍하고 참담합니다.

고난...

인과관계가 당연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납득 불가한 고난들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옴처럼...

온전한 옴은 10명의 자녀와 그의 모든 소유를 잃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저도 잃습니다. 옴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는 그를 오히려 정죄합니다. 옴은 자신에게 닥친 이 끔찍한 고난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옴은 심오하고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대답 대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 묻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리.

인과율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옴은 기쁨의 회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선을 행하거나 복을 기원하면 복을, 악을 행하면 징벌을 받는 그런 상업적이고 인과율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풀리지 않는 고난의 신비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영역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는 고난도 어쩌면 하나님의 신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 속에서 특히 더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옴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우리도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카페 평화반

저는 침묵은 냉담하고 못마땅한 것에 대한 침묵의 표현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13년 전 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죠. 그 상황에 대한 부분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침묵으로 거절하신다고 단정했습니다.

이번 욕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과 용납하심의 대답이었고, 그동안 혼란 속에 던졌던 많은 질문의 해답을 바로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올해10월 초에 갑자기 찾아온 심장마비 전조증상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심장의 대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골든 타임에 수술을 받게 하시고, 자매님들을 통해 적절한 필요에 대한 도움을 공급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선하신 인도하심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에게는 은혜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온 가족이 음식과 운동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훈련하기 시작했고, 함께 미디어를 끊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는 두 손을 잡고 기도하며, 무너진 가정 예배의 제단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육신의 병으로 인한 고난 뒤에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부부를 한 성령 안에서 화목케 하시며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더욱 신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욘은 고난과 동시에 축복을 받은 자이었다. 욘이 고난을 통해 “귀로 듣기만 하였시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욘42:5)라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욘기 말씀 중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욘 35:10)”은 나에게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밤을 지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고난의 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난의 밤을 지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과 침묵, 때론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처절한 눈물로 긴 밤을 새워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겐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고난의 밤은 있었다. 큰아들의 소아암 치료의 시간은 끝날 것 같지 않은 칠흑 같은 밤이었고,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한없이 흘러내렸던 눈물들... 이 시간은 결코 녹록지 않은 내 인생의 캄캄한 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밤에 노래하게 하셨다. 내 힘으로는 노래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눈물의 감사로 인생의 밤에 노래할 힘을 부어 주었다. 이번 욘기 말씀을 통해 나는 고난의 밤 이후 밝아오는 아침의 기쁨을 맞이하는 은혜를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다.

혹시 고난의 밤을 맞이하신 분이 있나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아침의 기쁨을 주실 것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현주

감동의 목소리 선물

말씀카페 안내반

저는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향수 말씀 카페에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기회가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읊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차가 폐차되는 큰 교통사고를 겪었고 그 후유증으로 눈에 통증이 있고 글씨를 보면 어지럽고 두통이 심해져서 글씨를 읽는 것, 영상을 보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교재를 읽고 “읊기” 나눔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이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천사를 예비하셨습니다. 첫 나눔 시간에 제 상황을 솔직히 내어놓았고 중보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다음 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름만 겨우 알게 된 안내반 자매님이 카톡으로 읊기 교재 질문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카페를 같이 듣고 있는 자매입니다.

교재가 뻑뻑하게 씌여있어서 읽기 힘들고 눈이 피로하시죠?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교재의 내용과 질문을 녹음해서 보내드립니다.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녹음하면서 저도 유익했어요.

자칫 놓치기 쉬운 질문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감사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글을 보내주는 자매님 덕분에 감동의 목소리와 더불어 읊기 공부와 숙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고 자매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녹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후에 매주 과제를 빠짐없이 녹음해서 보내주신 자매님을 통해 읊에게는 없는 영적 공감의 친구가 우리 반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유는 만 가지도 만들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며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간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는 ‘욥기’라는 말에 어려울 것 같고 큰 고통의 무게가 부담스러워 이번에는 다른 클래스를 들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제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게 욥기를 공부하라고 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역시나 제게 매 주마다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생각해보며, 큰 배움과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중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게는 6살짜리 딸이 있는데, 현재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고, 마지막에 요가 클래스가 있습니다. 스크린 쉐어를 통해 요가 수업이 시작되자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딸이 옷이 불편하여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때 마침 선생님이 화면을 보다가 속옷 차림의 딸을 보고 놀라서 황급히 화면을 꺼주고 제게 ‘수업 시간에 적절한 옷차림’에 대해서 아이에게 얘기해주면 좋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놀랐던 저는 자초지종을 물어보기보다는 정말 그랬냐며, 왜 그랬냐며 딸을 다그쳤고, 결국 저의 높아진 언성에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뒤늦게 이유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 저는 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겐 저는 항상 아이의 편이 되어주고, 아이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주라고 외치곤 했는데 정작 그 상황이 되자 저는 물어보기는 커녕 언성을 높여가며 다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며,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 될 수 있는 대단한 엄마여서가 아니고 그저 제가 그 상황에 처해있지 않기 때문일 뿐 저도 별반 다를 것이 없

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모습에서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며 가르치려고 드는 교만함,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 양 옳다고 외쳤던 나의 교만함, 나의 잦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였던 나의 교만함을 다 들추어내시며, 진정한 영적 친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황 목사님의 설교에서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 라는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한 자매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자매의 힘겨운 상황과 그에 따른 낙심과 좌절의 상태를 보게 하셨을 때, 저는 지금까지처럼 그 고통의 크기를 가능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제가 그 상황에 닥치지 않았기에 함부로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었을 뿐이고, 그 아픔이 느껴져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그 자매는 저를 안아주면서 “얘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들어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저의 배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욥기의 마지막 과를 공부하며 나는 내 인생의 영적 지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영적 여정에서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42장의 욥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었다. 왜냐하면 건강, 부, 명예, 지위 등과 같은 세상적 가치에서 자유로워 어떤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매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여정에서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었습니

다. 즉 기도나 성경 공부, 큐티나 예배, 나눔과 교제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걸음이 아닌 점프를 하여 그 최종 목적지에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지름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욥기 38-41장을 통해 보여주신 창조주, 주권자 그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길 때 나는 within the track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잊고 인정하지 못할 때는 off the track이 되어 옆길로 새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욥기 42장 6절과 같이 먼지와 잿더미 속에서 했던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잃었던 방향을 되찾고 track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지금의 저를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은연중에 그중에 몇 프로는 나의 노력과 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 정말 전능자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경험이나 전문가의 지식에도 발을 걸쳐놓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다시 저는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다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영적 인생 맵을 그리고 나니 모든 것이 너무 분명하고 명확해졌습니다. track에서 벗어날 때마다 바로바로 제자리를 찾으며 최종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전진하고자 합니다. ‘욥기’라는 성경에 지레 겁먹고 도망가려던 저를 불러 앉히시고, 매주 깨달음을 주시고 제 인생의 영적 맵까지 그리게 해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분주한 아침에 잘 집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향수 소그룹 모임은 언제나 많은 배움과 도전을 주기에 열려를 내려놓고 말씀 카페에 조인했다.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는 옴기를 배운다고 하여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첫날부터 자매님들의 고난의 순간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되면서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먼저 공부를 하면서 옴의 세 친구를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친구였는지 뒤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고, 같이 울어주고 묵묵히 옆에서 기도해 주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영적 친구가 되길 소망하게 되었다. 또한 절대 옴에 비할 수 없겠지만, 나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일어난 여러 육체적, 관계적,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그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음을 감사로 고백하게 되었다.

가장 새로웠던 배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옴의 인내’는 가만히 혀를 짹 깨물고 조용히 기다리며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아닌, 힘든 상황을 열정적으로 버티는 ‘끈기’에 더 가깝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 적극적으로 씨름하며 끈기 있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너무나 잘 아는 옴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단련’이란, 찌꺼기를 정화하거나 철이 금이 되는 연금술 같은 과정이 아니라, 순금이 진짜 순금인가를 증명하는 테스트 과정을 뜻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그룹의 한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자매님에게 왜 이런 시련이 계속 일어날까?’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종일 가슴이 답답했었다. 그런데 인내반에서 배웠던 이 구절이 떠오르면서 그 자매님이 진정한 순금이기엔 하나님께서 이런 ‘순금 증명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 뒤로 자매님을 만날 때마다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처럼 아름답게 보였고, 신실한 주님을 의지하며 순금으로 증명될 그 순간을 위해 평안함으로 증보할 수 있게 되었다.

옴기 공부를 마치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많은데, 험난한 고난이 또 찾아온다면?

물론 힘들고 절대 사양하고 싶지만, 정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30cm 자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절대 측량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음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옴처럼 끈기 있게 잘 견뎌 나가길 소망한다. 그리고 순금은 아니더라도 고난이란 단련의 시간을 통해 내가 14K 도금이라도 좋으니 제발 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크리스천으로 증명되기를 욕심내어 본다.





말씀카페 인내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욕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욕은 하나님께서도 온전하고 정직한 욕이라고 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욕의 세 친구가 그를 비난하고 욕이 대답하는 과정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욕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며 마무리하는 내용이 참 어려우면서도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욕기에 관련된 설교 말씀 들을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향수를 듣기 힘들 것 같은 사정이 있어 고민하던 중 말씀 카페에서 욕기를 공부한다는 말에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기대감에 공부하면서도 머릿속에 드는 질문도 많았고 욕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구나를 매 주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왜 주님이 내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욕기를 듣게 하시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혹시 내 앞에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기에 준비 하라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분명 사탄이 주는 생각임을 알고 더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숙제를 해 갈 때면 질문 투성이었던 제 노트가 자매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나면 빨간 글씨의 답으로 꽉 차있었습니다. 서로의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고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주워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욕기 마지막 두 과제를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조물주의 주권 아래 있는 나는 정말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며 제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진정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 계셨던 분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욕의 회개함으로 그를 다시 번영하게 하여주신 것이 아니고 진정 그의 세 친구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나서 하나님이 욕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중보기도를 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욕의 고백처럼 이제는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주를 눈으로 보길 매일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흥미 있게 읽지 못했던 책 중의 하나가 옴기였다. 깊은 의미를 깨달으려는 의도를 갖지 않고 읽었던 기억만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되는 곳에 더 오래 머물며 생각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쁨으로 지내왔다. 이번 학기에는 온유반 리더 자원자로서, 그런 옴의 체험을 매주 두세 번씩이나 연습과 복습을 해야만 했다. 어려운 번역의 고뇌가 지나간 후, 옴기 책을 받아 보면서 한 눈으로 확인되었던 것은, 일반적인 고통의 체험 경로와 너무나 유사하게 나열된 옴기의 ‘하나님과의 씨름하기’ 책의 목차였다.

근래에 내가 겪었던 사별의 아픔도 그 회복의 과정이 정말 놀랍도록 이 책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의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의 솔직한 질문들을 준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허공에 외치게 되고, 메아리쳐서 되돌아오는 질문들은 다시 나를 향해 울부짖게 했다.

폭풍같이 밀려왔던 모든 크고 작은 상황적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더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답은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였다. 가슴을 흔드시는 깨달음의 소리로, 나는 모든 상황적 추론을 만들어 내는 자세에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고난은 현실 속에 갇혀서는 볼 수 없는 믿음과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관문이다. 각자가 받는 고난의 깊이와 길이는 각각 다르지만, 그 증폭만큼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 준다. 어떠한 고난이든 그 끝은 존재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의 삶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 준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립이 정확히 이루어질 때, 모든 고난과 축복을 받는 그대로, 주신 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받을 수 있게 되고, 잘 지키어내며, 살아낼 수 있게 된다.

사별의 체험과 옴기 공부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은,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물질적인 축복의 근원이 아닌, 사랑의 관계로 유지해 나가야 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대화하는 삶을 살아나가기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나 권사

말씀카페 온유반

코비드-19을 통한 감사

2020년 코비드-19을 통해 특별히 받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IT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비대면의 가을 향수에서 예배와 기도와 소그룹을 통한 율기 말씀 공부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둠과 고통으로 가득 찬 코비드-19의 강을 건너가며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팬데믹으로 고통하는 과정에서 나만 잘살고 편안해지려는 것이 얼마나 큰 최악인 줄 깨닫게 하시고, 아파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하는 동참이 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지역사회,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도 넓혀주셨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이며 남의 아픔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와 고난이 주는 유익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향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순희

이슬비 성경암송

도전과 성장

향수 암송반 리더로 처음 섬기게 되었다. 암송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있었기에 리더 수락을 흔쾌히 하였으나 그동안 암송반 신청율,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였기 때문에 클래스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많은 자매님이 신청하여 시작할 수 있었다.

시작할 때의 우려와는 반대로 암송반은 매주 은혜 가운데 있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의 입에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왔고 우린 서로에게 은혜로 화답하며 시너지 효과로 총만함을 경험했다. 어느 주는 주신 은혜가 동일해서 감사했고 어느 주는 다양해서 감사했다. 가을 향수 동안 받는 은혜가 익숙해졌는지 앞으로 있을 학기에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비정상일 것 같다.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과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였기에, 이 우려는 나에게 상당한 도전이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역시 영적 갈급함을 느꼈고 이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했다. 섬기고 있는 사역들 어떠한 것도 포기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주어진 상황을 받아 들이며 갈급함을 해결해야 했다. 그 가운데 훈련한 것이 '낮 기도' 였고 향수가 끝날 즈음에는 잘 정착되어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성도가 됐다.

주 안에서 성장은 참으로 끝이 없기에 감사하다. 왜냐하면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향하여 가면서 날마다 새사람을 입으며, 삶이 늘 새로워서 기대하게 되니 즐겁기 때문이다. 기대하는 나를 언제나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참 좋다.



정신애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슬비 성경암송

가을 학기 향수가 시작될 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어와나, 향수가 동시에 온라인 오픈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애가 셋인 엄마가 주일학교 교사, 어와나 교사, 향수, 뉴비전스쿨 다 하면 안되는 것 알지?” 라고 하며 향수 등록을 반대하였고, 목장 식구들도 한 학기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가을 향수를 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향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개강 예배에 참석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자매님들이 소그룹으로 들어가고 덩그러니 전체 방에 남겨졌을 때, 갑자기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소그룹 안 해도 된다고 하신 것 아니었나요?’ 라고 묻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틀어갈게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대답한 후에 카톡 방 몇 개에 ‘나 향수 소그룹 조인해야 할 것 같은데 링크 하나만 보내줘요’ 라고 올렸습니다. 향수 소그룹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을 때 ‘언니! 나랑 암송하자’ 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이제 막 넷째를 출산한 수민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향수 등록을 반대하던 남편까지도 치매 예방에 말씀 암송이 좋다는 황당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결국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네 아이의 엄마인 박지영 자매까지 설득해서 다동이 엄마 세 명이 이슬비 암송반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다동이 엄마들을 위한 배려로 ‘스크린 끄고 있어도 됩니다. 암송한 것 녹음 파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나눔 못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은혜의 법이 암송반 클래스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늘 벼락치기로 말씀을 외웠고, 목상은 하지도 못한 채 외우는 것에만 급급한 저였지만 정해진 시간에 암송반 링크 클릭을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선포된 이 은혜의 법과 그곳에 스크린을 끄고 있지만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수민 자매와 지영 자매, 말씀 암송이 선클이라고 고백하는 자매님들의 암송 소리, 그리고 그들의 진실한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은혜의 나눔을 늦잠 자고 일어난 막내에게 아침밥을 먹이면서, 사라진 색깔 크레용을 찾으면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들을 수 있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온전히 참

석하지 못하고 온전히 암송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암송반 멘토 권사님께서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라는 격려의 말씀에 종교적 잣대로 책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부어지는 듯하였습니다. 은혜의 법에 연이은 붙어 있으면 된다는 아낌없는 격려를 받으면서, 부족한 가지로 붙어있는 나 자신과는 상관없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내가 맺는 열매를 결정하신다는 생생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꽃아주신 이 링거 주사 바늘을 꽂고 있지만 하면 된다 라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여도 화면을 켜놓을 수 있었고 벼락치기로 외우던 말씀도 이제는 매일 아침 반복해서 읽으며 입술과 마음에 담을 수 있었으며 그 말씀이 빛이 되어 늘 어질러진 방 같은 제 삶이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 말씀들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년동안 뇌출혈로 병상에 계신 엄마의 시력이 다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로마서 5장 2-3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말씀을 멍하니 외우며 ‘아멘’ 이라고 답할 수 있었고, 힘들지만 선명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여동생과 울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저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말씀 통독이 사워였고, 큐티가 밤이었는데 게을러지면서 사워는 점점 거르고, 밥은 형식적으로 겨우 먹고 있는 저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암송이라는 영양 주사를 놓아주셨습니다. 많은 암송반 자매님들이 매주 눈물 콧물 쏟으며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난 암송반 꼴찌야’ 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간증자로 제비 뽑아 주시고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은혜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시편 103편 1-2절> 암송하며 저의 간증을 마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슬비 성경암송

지난 7월 전혀 예기치 못한 육신의 질병으로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며 간절하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말씀 위에 기도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무렵 향수 등록이 시작되었고 이슬비 암송반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암송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주님이 주신 음성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목장에서 나눔 할 때 목장 식구들에게 선포를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자매님께서 나중에 목장 식구들 앞에서 암송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얼마 전에 주일 설교 말씀이었던 시편 91장 1절에서 8절을 목장 식구들 앞에서 암송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암송하면서 가장 크게 체험한 것은 말씀을 믿을 때 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암송하더라도 암송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각자 암송하고 소그룹으로 만나게 되어 은혜를 나눌 때 느꼈던 점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사하셨던 은혜를 조각조각을 모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한 피로 묶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에 놀라웠습니다.

암송했던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은 울케가 투병할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수술 전 안재규 목사님과 정훈 목사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돌아와 위로해 주고 저로 하여금 붙잡게 하셨습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은 불라에서 투병으로 힘든 형제님께 드렸던 말씀이었는데 또한 저를 치료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 입구부터 혼자 수속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말씀을 암송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느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혼자서 얼마나 두려울까?' 하며 불신자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말씀암송 중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더 와 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에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말씀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힘든 기간 이슬비 암송반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즐거워해야 함을 알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 소그룹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권사님과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성혜정 전도사 은퇴



성혜정 전도사님의 은퇴가 갑작스러운 것도 아닌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고 보니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쓸쓸할 수가 없네요. 향수여성예배가 시작되었던 2006년, 전도사님과 저의 인연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기쁜 일도 많았는데, 오늘은 왠지 어려운 문제 앞에 함께 기도하며 견뎌 온 시간이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생각해보면 향수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매순간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긴 세월이 지난 지금, 물 흐르듯 하나 되어 순종하며 섬기는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향수 공동체 안에 제 이름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향수가 이렇게 성장한 중심에는 성혜정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전도사님 옆에서 보고 배웠던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사님의 무한한 인내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가지로 서로 다른 여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한마음 되어 하나의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심방에 동행하면서 전도사님의 특별한 '위로의 은사'를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과 아픈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과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적절한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로 인해 저 에게도 힘든 성도들을 찾아가는 긍휼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사님의 약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설교하시고, 소그룹 클래스 개발과 리더 훈련에 힘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성 리더를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장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먼저 세우시고 용기를 주셔서 결국엔 훌륭한 여성 리더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향수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세워진 리더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여서, 지난 14년의 저의 신앙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했고 행복했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향수도 before 성혜정, after 성혜정으로 나누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전도사님의 앞날에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성혜정 전도사 은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 바람을 타고 지나갑니다. 막연히 ‘언젠가는…’ ‘그때가 되면…’ 하던 바로 그 때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 이별장을 건네줍니다.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것처럼 당황합니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해왔습니다. 아이들을 주 안에서 어떻게 키워야 할 지, 어떻게 가정을 가꾸어야 할 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조곤조곤 사랑으로 안내해 주셨던 분, 부모 곁을 처음 떠나보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눈빛과 미소, 다정한 인사로 포근히 맞아주셨던 분, 그 아이들 자라는 모습 살펴봐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분, 어려운 일 맞닥뜨려 어떡하지 발 동동 구를 때에도 기도해 달라고 첫 번째로 전화하게 되는 분, 외로운 병실과 슬픔이 젖어있는 곳, 마냥 즐거운 기쁨의 자리…

그 어느 곳이든 우리들 삶의 여정에 주님 마음으로 늘 함께하셨던 분,

배우는 거 멈추지 않고 배운 거 나누는 것에 용기 주셨던 분,

작은 체구 어디서 그런 당당함이 나올까 놀라게 하셨던 분,

젊은 사람들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 무궁무진…

꼼꼼하고 디테일한 성실함에 또 놀라게 하시는 분,

자신의 건강보다 연약한 자매들 하나하나의 손을 꼭꼭 잡아주고 중보해 주셨던 분,

이렇게 15년을 주님의 향수, 우리들의 향수를 이끌어 오셨던 분,

이렇게 25년을 주님의 교회, 우리들의 뉴비전을 섬겨오셨던 분……

전도사님, 사랑하는 성혜정 전도사님…

아직 다 드리지 못한 보답, 이렇게 사랑의 빛으로 잔뜩 남았는데 왜 이리 야속하게 작별시계가 울리는 것인가요? 전도사님 통해 받은 하나님 사랑 누가 누가 더 많은가 컨테스트한다면 우리 모두가 챔피언인데 그 러브스토리 다 담을 언어와 지면이 턱없이 부족함에 안타까워요.

눈가에 맺힌 방울, 흐르는 눈물, 그 안에 담긴 만감, 가까이서 꼼꼼히 볼 수 없고 따뜻한 온기 포근히 느낄 수 있는 포옹조차 나누지 못함이 너무나 아쉽지만 언젠가 저희에게 오시면 편안히 묵으실 수 있는 사랑방 기꺼이 다투어 내어드릴 터이니 언제라도 좋아요, 전도사님…

버스 터미널, 기차역, 공항에 서 있는데 아직도 실감 나지 않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부디 아무썸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전도사님과 온 가족과 부르심 따라 걷게 되실 길 위에 영원 무궁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전도사님…

우리 모두의 감사꽃 한 아름 안겨 드리며…….

2020년 마지막 달 초하루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에스더 드림

최정운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사랑에 푹 빠지게 해주신 그 분... 성혜정 전도사님이셨다고 고백하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지윤

향수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전해지는 파워풀한 말씀은 성령의 큰 감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2막의 인생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유미

성혜정 전도사님 통해 예수님의 향수 팀장으로서 주님의 교회의 사역과 섬기는 리더로서의 본도 잘 배울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주신 능력과 힘으로 끊임 없이 배우시고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심방하시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셔서도 존경과 사랑의 맘 담아 감사드립니다...

백지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해 같이 빛난 전도사님의 웃는 얼굴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한결같이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저도 언젠가 주님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거 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혜정 전도사님의 계속될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세라

성혜정 전도사님~ 하나님안에서 끝까지 충성하시고 쉬지않고 기도하시며 가르쳐 주신 모든 배운것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향수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 부터 .. 감당하기 힘든 일까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해주셔서 지금 여기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섬김과 사랑과 겸손과 순종... 전도사님께서 물소 보이시고 실천하신것을 저도 배우며 따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원은경

그동안 향수예배와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도 넘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사랑의 열정과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려주신 전도사님의 헌신 위에 주님이 맺어주신 성령의 열매들을 은혜로 누리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 전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연합되고 깊어진 전도사님의 골든 영성으로 하나님이 이제부터 또 이루어가실 일들을 설렘으로 기대하며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하는 성혜정 전도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원정화

연약하신 중에도 늘 밝은 미소와 넘치는 에너지로 더 연약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며 소망으로 일어서게 도우시던 사랑의 손길과 부지런한 섬김의 발걸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순희

향수를 잘 정착시키고 성장시키셔서 귀한 선물로 남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매들에게 향수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는 타지에서 이민온 제가 잘 압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정은정

저의 멘토이신 전도사님, 늘 삶의 신앙의 본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린이사역과 향수를 통해 복음전파, 영혼구원, 제자양육에 쏟으신 열정을 본받습니다. 사랑합니다~ 전도사님.

최윤숙

당신은 '전쟁 가운데 활짝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당신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사역함은 큰 축복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과 열린 마음, 그리고 끊임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늘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처럼 자매야~하고 손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손길이 참 따뜻했습니다. 존경하는 내 아이들의 선생님, 나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송혜란

최고의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 늘 준비하시고 애쓰신 전도사님을 기억하며 따르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시고 배움의 열정과 헌신의 삶을 가르쳐 주신 전도사님께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한광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열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활기차고 행복했습니다. 많이 그립겠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로 해요. 사랑합니다!

박영미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향수를 통해서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눈물의 기도와 보여주신 따뜻한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하신 말씀의 선포를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뉴비전에서의 아름다운 완주를 마치신 사랑하는 전도사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곳에서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김국희

향수를 통해 제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태어난 후, 전도사님을 통해 매 주 향수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와 소모임 나눔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따뜻히 대해 주신 전도사님의 모습 잊지 못할꺼예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전도사님!

박진희

항상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전도사님의 은퇴로 그 빈자리가 너무 크지만 전도사님의 가르치심대로 계속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향수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양육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신 전도사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현비

“오늘도 기쁨을 선택하라” 때론 세상을 바라볼 때 낙심되며 상황을 보면 어려운 것들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 볼 수 있도록 저역시 전도사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아침마다 기쁨을 선택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며 아침을 맞아보려 합니다. 전도사님의 아름다운 어린이사역 향수 사역의 발자취가 예수님의 foot step을 따라가는 섬김의 모습이였기에 선한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늘 주님께 붙잡힌 바 되시며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전도사님 응원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장은경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삶으로, 교회와 영혼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믿음의 분이 되어주신 전도사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께서 심으시고 가꾸시며 열매맺은 향수 공동체... 복음의 열매들인 저희들도 매일 지혜롭고 강하고 현숙한 삶으로 인도하는 기쁨과 감사를 선포하며 예수사랑 정원을 넓혀가겠습니다. 하나님과도 우리 서로도 더욱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국은희

사랑하는 성혜정 전도사님의 샘솟는 열정과 기쁨이 어디서 흘러 나올까.. 말씀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은 예수님 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 같이 흘러 넘치는 예수님의 진리와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전도사님을 걷고 뛰게 하시며, 뉴비전 교회와 향수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도사님의 선한 발걸음을 통해 예수님이 전하여지는 복이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한나

당신은 가람비 옷 젖는 줄 모르게 젖어 가는 비처럼 당신은 그렇게 내게 오셨소	어느덧 이별이라니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 새로운 도약을 축하합니다.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를 슬픈 자 위로하시는 그 사랑에 젖어 행복이었소	이별 안고 살아가는 존재 다시 만날 소망을 우리 모두 고이 간직합니다.
외로운 자 불러 함께 하는 당신으로 인하여 나는 위로와 기쁨을 알았소	

진수민

전도사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로 제게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셨는데요.. 그중에 수년에 걸쳐 보내주셨던 “주님의 얼굴 빛”은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였고 감동의 편지이며 믿음의 결단이고 삶의 지침서 같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곡조를 붙여 꼭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앞으로의 많은 시간들이 그 노래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 되시기를 겸손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종원

배움에 대한 겸손한 자세와 열정..
주님을 닮은 친절함과 부드러운 단호함..
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과 섬김과 사역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전도사님께 깊은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사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헌신적 섬김과 충성스럽고 담대한 하나님 나라 확장은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로 널리 퍼졌고 뉴비전교회 여성 사역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강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영적 어머니 멘토이신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성혜정 전도사

은퇴인사



뉴비전교회의 사역을 마치며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많이 힘드시지요? 펜데믹 상황이 아니면 성도님들을 얼굴로 뵈고 손도 잡아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고 떠날텐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6년 5월 1일, 이지춘 원로 목사님께서 담임목사로 시무하시던 “산호제일침례교회”에서 영아부 전도사의 섬김을 시작으로 25년 동안 뉴비전 교회를 섬겼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뉴비전교회에서 주님의 종으로 써주시고, 공식적인 임기를 잘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동안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5년을 돌아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쁘고 감사했던 어린이 사역,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투병하던 분들이 치유받으며, 아기를 간절히 바라던 가정에 아기들이 태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중보기도 사역, 젊은 자매님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부부관계가 해결되고,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며 가정이 화목해지는 향수 예배사역,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거뜰히 치러냈던 블라 여선교회 사역,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로 젊은 자매님들의 멘토가 되어 주신 권사님들과의 사역, 외롭고 연약한 성도들, 투병하는 성도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드렸던 심방사역, 또한 연로하신 안나 공동체 어머니들과 공동체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었던 축복, 가족을 잃고 슬픔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 하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던 “사별가정 회복모임 (GriefShare & Healing)”, 그 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역들을 성도님들의 브리지로서, 디딤돌로서, 때로는 딸과 언니와 엄마의 역할로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놀랍고 큰 축복이었던지요!

이 섬김의 사역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더 알고 이해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또한 나 자신을 알아가도록 다듬어주셔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에 만족하는 “은혜로 사는 자”로서 교회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번의 수술을 하고 투병할 때, 기도와 위로와 음식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투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연약한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더 심방해 드리지 못하고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너그러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끝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 처럼,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한분 한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13-14 말씀으로 작별 인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뉴비전교회

New Vision Church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 office@newvisionchurch.org
 www.newvisionchurch.org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Building God's People to Transform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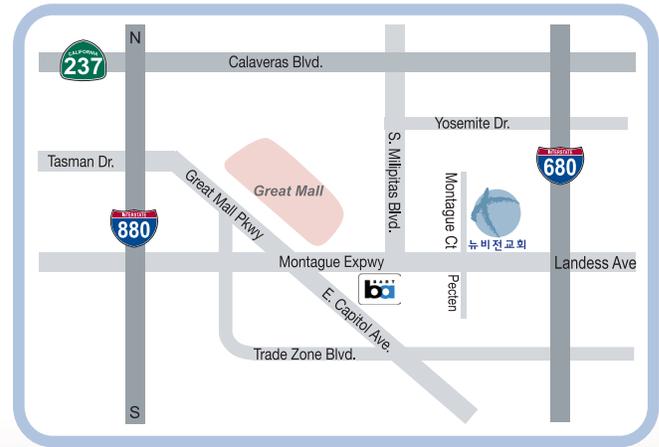
주일예배 | Sunday Worship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15 am	본당
4부 청년 열린예배	1:15 pm	본당
영아부 (0-2세)	9:30 am & 11:15 am	본관 Little Lamb Garden
유치부 (3-5세)	9:30 am & 11:15 am	교육관 Noah's Ark
유년부 (1-2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New Song Chapel
초등부 (3-5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Wisdom Chapel
중등부 (6-8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Vision Chapel
고등부 (9-12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Lighthouse Chapel
영어대학부(Oasis)	1:30 pm	교육관 Vision Chapel

주중모임 | Weekly Schedule

매일 새벽기도회	5:30 am	본당 (토요일 6:30 am, 주일은 쉬)
화요 여성예배 (향수)	10:00 am	Pathway Chapel
수요 저녁예배	7:30 pm	본당
목요 청년예배	7:30 pm	Vision Chapel
금요 한국학교	4:30 pm	교육관 각 교실
금요 뉴비전성경학교	7:30 pm	본관 각 교실
금요 고등부 모임	7:30 pm	Lighthouse Chapel
금요 중등부 모임	7:30 pm	Vision Chapel
금요 어와나(AWANA)	7:30 pm	Noah's Ark, New Song Chapel
토요 노아대학	9:30 am	본관 및 교육관 각 교실
열린학교	주중 클래스별로	본관 및 교육관 각 교실

- * 어린이부, 중고등부 예배는 2부 3부 장년 예배 시간과 같으며 1부와 4부 예배 시간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 * 예배 후에 장년 목장모임, 어린이부, 중고등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 2021년부터 주일 장년 영어 예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문의 EnglishWorship@newvisionchurch.org)



Find us on:
facebook.



NVC
 Website



SUBSCRIBE
 TO OUR CHANNEL

